

광양, 청소년이 꿈꾸는 미래 함께 키운다

LOCAL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58억원 투입...5개 핵심분야 지원 정책 구체화 역량강화·참여확대·유관기관 협업 등 환경 조성

광양시가 올해 58억원의 예산을 투입, 청소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미래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청소년 역량 강화와 위기청소년 맞춤 지원, 청소년 자립·보호, 청소년 참여 확대,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 총 5개 핵심 분야로 정책을 구체화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시는 우선 청소년들의 자기 개발과 재

능 향상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문화센터, 광양청소년문화의집, 금호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며, 방과 후 아카데미, 진로 탐색 프로그램, 미래주도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개인의 특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80여개의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과 연 10회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개

최해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페스티벌(2월), 초록동요제(7월), 푸른성장 청소년 대축제(10월) 등 다양한 행사도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있다.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심리 상담과 학습·진로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 사업, 청소년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하

고려 청소년을 위해서는 학습 복귀 및 사회 진입을 돕는 교육, 취업,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급식비 및 교육비, 문화체험비, 교통비 등(월 5만~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해 서비스 분야별로 최대 월 65만원, 연 35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한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 청소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관리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는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을 돕는 교육, 취업,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급식비 및 교육비, 문화체험비, 교통비 등(월 5만~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위해서도 다양한 보호 및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청소년 부모 지원 사업을 통해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김중호 광양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청소년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며, 광양시는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광양시를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함평,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업종별 차별화 인센티브 제공

함평군은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착한 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중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 서비스 요금 업종을 운영하는 업소로, 군민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소이다.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나 지방세 체납 등이 있는 업소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군청 인구경제과(061-320-1733)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개인 정보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메뉴 가격표 사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격(25점), 위생·청결(25점) 등 평가 항목에서 총합 4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특히, 가격 항목에서는 인근 상권 평균 가격 대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선정된 업소에는 주방용품, 쓰레기봉투 등 필요 물품이 지원되는 등 업종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함평=최일규 기자 6263739@gwangnam.co.kr



순천, '아픈아이 병원돌봄' 주말 확대 전남 최초...입원아동 식사·복약 등 양육공백 해결

순천시가 지난 2023년 7월 전남 최초로 도입한 '아픈아이 병원돌봄 서비스'가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을 얻으면서 주말에도 확대 실시된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기존 평일에만 제공하던 병원 내 돌봄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해 양육 공백을 해결하고,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했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순천시에 거주하는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입원 아동을 지원한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병원에 방문해 아동의 식사, 복약 지

원 및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는 1대1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1일 최대 10시간, 연 최대 10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단가는 시간당 1만4000원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50%에서 90%까지 지원된다. 다만 주말 서비스의 경우 50%의 추가 인력비가 발생하며, 추가 지원비는 본인 부담 원칙이다.

협약병원은 현대여성아동병원, 미즈여성아동병원, 미래로소아과병원, 이노스이비인후과, 플러스아이미코병원 등 5개소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나주시는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뉴트리어드바이저, 이화여자대학교, 충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와 '푸드업사이클링 실용화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주, 푸드업사이클링 산업화 '온힘'

(주)뉴트리어드바이저·이화여대 등과 협약 체결 농축산 부산물 연구개발·시제품 양산 등 강화

나주시가 푸드업사이클링 산업화를 위한 산학 기관과의 협력 인프라를 넓혀가고 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나주시청 이화실에서 ㈜뉴트리어드바이저, 이화여자대학교, 충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와 '푸드업사이클링 실용화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를 포함한 5개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농축산 부산물을 활용한 푸드업사이클링 연구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힘을 모은다.

특히 2026년까지 설립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등 상호 기관의 설비를 활용한 실증 및 생산과 푸드업사이클링 산

업화 사업 추진, 협회 조직화 등에 상호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푸드업사이클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푸드테크 10개 분야 중 하나로 농수축산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버려지는 식품 부위를 사 용해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산업이다.

시는 2024년 농식품부에서 주관한 푸드업사이클링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협약에 참여한 (주)뉴트리어드바이저는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K-미숫가루 연구

개발을, 이화여대(식품영양학과)는 제품화를 함께 추진 중이다.

충북대학교(축산학과)와 경상국립대학교(동물소재공학과)는 학과 특성을 반영해 축산 부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협약을 통해 농산부산물 확보에서부터 가공,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 시제품 양산 및 유통 등 푸드업사이클링 산업 전반에 걸쳐 각 기관과의 공동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병태 시장은 "협약에 참여한 산업체와 대학교의 함께 푸드업사이클링 공동 연구개발, 기술 공유, 실증·생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과 농가 소득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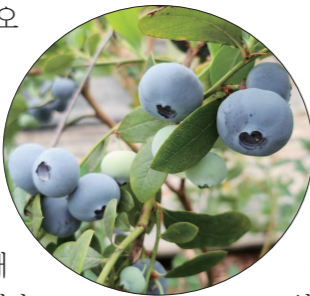
곡성, 블루베리 조기 수확·출하 시기 분산효과

곡성군은 최근 고달면 오성중씨(37) 농장에서 올해 첫 블루베리를 출하하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곡성군의 블루베리 재배 농가는 119농가로, 재배 면적은 38.6ha(가은 28%, 비가림 22%, 노지 50%)에 이른다.

블루베리는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돼 6월부터 수확되지만 곡성군은 시설하우스를 활용한 가온재배를 통해 수확 시기를 3~4월로 앞당겼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신선한 블루베리를 더욱 빨리 접할 수 있으며, 농가는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3월 초중순 특 1kg당 도매가격은 9만원으로, 지난해 6월 중순 평균 가격(2만 9000원)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곡성군의 올해 예상 생산량은 263t, 조수입은 71억 원으로 전망되며, 3월부터 8월까지 장기간 생과 출하를 위해 난방기, 다점 온코너 등 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곡성군에서 생산된 블루베리는 일교차가 큰 중간산지의 청정 환경과 시설 재배의 장점이 결합하여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